

서평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 지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자

존 스토트 저 | IVP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존 스토트 지음

번역가: 김현진, 김민정

지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따지기 좋아하게 되고, 믿음을 갖기 어렵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은 선생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에는 사고(생각)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이 마치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느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지적으로 깊이 동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도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과연, 생각하는 것과 믿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또한, 나의 지성을 사용하여 깊이 생각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줄어드는 것일까? 이 책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기독교 청년으로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잡힌 지성이 갖는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지침서이자, 주신 지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귀한 안내서라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은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 받는 존 스토트의 저서로, 1972년 영국 IVP 연례 수련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성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대해 역설한 강연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 각자에게 주신 지성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탁월하게 사용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조은상** 현재 성균관대 수자원 전문대학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B.S.)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한반도 지역 토양수분 분석”을 주제로 석사(M.S.)학위를 받았다.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계 수자원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부천길교회에서 청년부 간사와 찬양인도자로 섬기고 있다.

1장 ‘지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에서는 반 지성주의로 흘러가는 기독교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지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불편한 우리들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다. 즉, “그것이 진리인가?”에 대한 기준보다 “그것이 효과적인가?”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실용주의에 물든 현대 교회의 모습과 자신이 추구하는 대의명분을 위해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기독교 청년들의 모습 등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올바른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의 삶 속에 이 지성이 균형 잡힌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우리 모두가 진리에 의해 불붙은 참된 헌신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한다.

2장 ‘지성의 성경적 기초’에서는 성경 전체의 주요 개념(창조, 계시, 구속, 심판 등)들을 중심으로 지성이 어떻게 성경의 핵심 내용과 연결돼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비록 아담과 하와와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적으로도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1:18)고 말씀

하시며,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당신 앞에 나아오라고 명령하신다. 또한, 저자는 계시의 교리 측면에서도 지성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에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비록 유한한 지성이지만, 그분의 메시지를 받고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에, 이 지성을 충분히 사용하기 바라신다는 것이다.

구속의 교리를 살펴보면, 인간의 지성에 전달되는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주요한 수단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역시 이성적인 계시임을 말한다. 또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골 3:10)” 곧 지성의 회복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교리와 지성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반항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

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 하리라(요 12:48)”

3장 '지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진리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지성과 믿음이 결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 지성을 충분히 사용할 때 성결을 추구하고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풍성한 이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나 다양한 사역과 갖가지 은사를 사용할 경우에도 성경에 기초한 지성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4장 '지성에 근거한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지성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지식에 입각한 행동과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책의 메시지가 선포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스토트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현재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간파하며 정확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 없이 열정만을 조장하는 반 지성주의적 풍토를 단호하게 비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성경의 예들을 통해 성도들을 권면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지식만을 강조하여 냉랭한 마음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향한 현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우리의 전 인생(지정)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임을 말해준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지나온 청년의 시기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뜨겁

게 예배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씀에 대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명분하에 맹목적으로 행동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또한 캠퍼스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도, 각자에게 주신 지성을 충분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기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선택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지적인 수고를 회피하며 안주했던 모습도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비단 본인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가치의 상대화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날카로운 복음의 칼날로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준비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절실하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기독교인이 깊이 있는 지성으로 무장되길 바란다. 또한 그 지성이 감정, 의지와 균형을 이루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되길 소망한다.

나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의 선물로 주신 지성을 회복한 자로서,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고 지성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날마다 허락하신 지성을 탁월하게 사용하여,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명확히 맞추어 한걸음을 내딛고 싶다. 나아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엨 4:13)” 자리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길 원한다.

당신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스스로 질문해보자. “나는 최선을 다해, 지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